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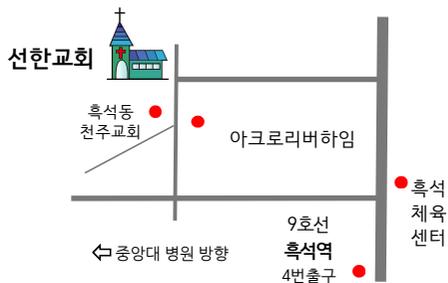
예배 및 모임 시간 안내

주 일 예 배		부서 예배 및 모임 (주일)	
1부 주일 오전	9:30		
2부 주일 오전	11:00	믿음의 씨앗 (유아부)	오전 11:00 여호수아회 오후 2:00
3부(청년) 오후	1:00	선한 꿈 (유초등부)	오전 11:00 요셉회 오후 2:00
주 일 오후	3:30	파워틴 (청소년부)	오전 11:00 바울회 오후 2:00
수 요 예 배	수요일 저녁 7:30	청년부	오전 11:00 루디아회 오후 1:00
금 요 기도 회	금요일 저녁 8:30	비전위십	오전 11:00 마리아회 오후 2:00
새 벽 예 배	월-금요일 새벽 5:30		오전 11:00 드보라회 오후 2:00
셀가족모임	셀별로 정한 시간		오전 11:00 에스더회 오후 2:00

섬기는 분들

사역자	담임목사 임춘배 교육목사 정용준 협동목사 홍진표 교육전도사 윤영 협력전도사 오효남	국내선교사 협력교회	오인숙, 한배선 가슴뛰는교회 (원종선 목사) 기쁨교회 (유성은 목사) 주안예교회 (이정필 목사) 주의뜰교회 (김대열 목사)
은퇴장로	고상돈, 김대희 박희태, 유신웅 조윤익	해외협력선교사	김만조, 이금춘, 조나단
장로	편도선 (집사장) 박영근, 윤호중 조계승, 이태수	관리장로	손석규 500/50 교회 (1호) 필리핀 Good Church (2호) 세종 선한교회(신원섭 목사)

선한교회 오시는 방법



버스간선 151, 350, 360, 462, 640, 752(호사정앞 하차)
지선 6411, 5524, 5511, 5536, 5517(중점)
광역 9408
마을버스 동작01, 10, 21(중앙대병원)
지하철 9호선 흑석역 4번출구 (도보 5분)
7호선 상도역 *5번 출구 하차 후 마을버시아용(동작 01, 10, 21)

06910 서울 동작구 흑석로13마길 1 (흑석동 173-30)
대표전화 (02) 815-6213 FAX (02) 815-6065 홈페이지 <http://www.sunhan.org>

표어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고후 9:6)
whoever sows generously will also reap generously

실천사항 물질 심기 기도 심기 복음 심기

삶의 방식 (빌 4:1-7)
교회에 대하여 : 같은 마음을 품고 동역하자
개인에 대하여 : 주안에서 항상 기뻐하자
성도에 대하여 :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자
문제에 대하여 :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벧후 3:9)



담임목사 임춘배

**주일
예배**

1부 오전 9:30 2부 오전 11:00
3부 오후 1:00

인도: 임춘배 목사
인도: 정용준 목사

1, 2부		3부(청년)
기 원	인도자	
찬 양 과 경 배	25장 (통일찬송가 25장)	
교 독 문	교독문 41번 (시편 97편)	
찬 양 과 경 배	515장 (통일찬송가 256장)	
기 도	박영근 장로	
찬 양	드림성가대	
성 경 봉 독	베드로후서 3장 1~9절	삼상 27:1~7
설 교	말세에 잊지 말아야 할 것 (임춘배 목사)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정용준 목사)
헌 금	헌금송 : 지 영 박미정 집사 가정	다 함께
환영 및 광고	인도자	인도자
파 송 의 노 래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일어나 그 빛 비추라
축 도	임춘배 목사	정용준 목사
성 도 의 교 제	다함께	

**주일
오후**

오후 3:30

사회: 임춘배 목사

찬 양	Joy And 찬양팀	
기 도	김정원 권사	
성 경 봉 독	이사야 32장 1~8절, 15~20절	
설 교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는 한 왕 (임춘배 목사)	
찬 양	찬송가 38장	
축 도	임춘배 목사	

**수요
예배**

오후 7:30

인도자: 임춘배 목사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시 116편 1~19절)

교회소식

- 예배 중에는 핸드폰을 무음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배 10분 전부터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 배 안 내

- 1) 주일 11시 예배는 영상으로 제공합니다.
- 2) 교회헌금계좌: 기독교한국침례회선한 국민은행 02510104158558
- 3) 오늘 점심 봉사는 여호수아회입니다.
- 4) 주차 안내
 - ① 중앙대 정문 주차장 이용.
(네 시간 주차: 2천원권 / 네 시간 이상 주차: 5천원권).
* 주차권은 사무실에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 ② 흑석종합사회복지관 무료 주차 가능.

**2. 추 수 감 사 주 일
새 생 명 축 제**

1.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2부 예배 때 축제예배와 새생명 축제가 있습니다.
2. 초청할 분들을 기도하며 정하고 작성카드를 작성하여 각 부서 부장 및 회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노방전도 일정
 - ① 토요일: 11월 16일(토) 오후 1시
 - ② 금요일: 11월 1일, 8일, 15일 오후 6시 30분~7시 30분
4. 주차 안내
17일(주일)은 새신자 분들의 주차를 위해, 성도님들께서는 중앙대 주차장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추 수 감 사 주 일
장 식**

강대상 장식을 위한 과일 및 장식품은 17일(주일) 오전 10시까지 본당 강대상으로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4. 성 탄 준비 위 원 회
모 임**

오늘 2부 예배 후 성탄준비위원회 모임이 1층 안다옥실에서 있습니다.
* 참석 대상: 각 부서 부장님, 자치회 회장님

5. 저 녁 기 도 회

수능생과 새생명축제를 위한 기도회를 진행중입니다.
* 기간: 11월 4일~15일(매 주 월~금요일), 시간: 저녁 8시
* 장소: 2층 본당

6. 수 능 기 도 회

14일(목) 오전 8시 40분부터 수능기도회가 있습니다.
* 장소: 2층 본당

7. 총 회

11월 24일(주일)까지 각 부서 총회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간의
기도제목**

우리의 삶이 예배임을 기억하며 예배자로 살아가도록.
주의 재림의 날을 날마다 깨어 준비하는 신앙이 되도록.

찬송 : '내 평생에 가는 길' 413장(통470)

본문 : 마태복음 14장 22~32절

말씀 : 지나간 것이 아름답다고 생각하며 과거만 회상하며 사는 사람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늘 지나간 일에 붙들려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와 비전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위기에 직면할 때는 주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하는데, '그때가 좋았었지'라고 회상만 하면 원망과 후회, 자책의 눈물만 흐르게 될 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앞에 새로운 가능성의 길이 열린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을 펼치면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가 주신 꿈을 품고 살다가 복 받은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품고 살면, 미래가 보이고 지금 처한 온갖 어려운 현실을 극복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삶을 살게 된다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본문 속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재촉하시자 먼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갑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보내시고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날이 저물었고, 바람이 강해져서 제자들이 탄 배가 고문을 당하고 있을 때 제자들은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무서워합니다.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자 베드로가 자신도 물 위를 걷게 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시는 말씀에 의지해 물 위를 걷게 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보던 시선을 풍랑으로 휘몰아치는 물 위로 돌렸고, 그 순간 베드로의 마음에 두려움이 몰려와 물에 빠졌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할 우리가 주위 환경, 상황을 바라보고 살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경제, 건강, 관계 등 두려움을 주는 위기들이 우리를 위협합니다. 하지만 위기를 이기는 힘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데서 옵니다. 위기라고 여기는 환경만 바라보면 낙심과 두려움만 줄 뿐입니다. 누구나 일시적으로 절망을 체험할 수는 있습니다. 순간 찾아오는 두려운 감정과 절망적인 생각으로 떨 수는 있을지라도 그 순간 우리가 분명히 바라봐야 할 것은 오직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겠다는 약속과 구원의 약속들로 가득합니다. 살리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깊은 수렁에 있을지라도 건져내 주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책임지시고 사랑하십니다.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를 향해 즉시 손을 내밀어 건져주신 분은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왜 의심했느냐"고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는 것과 같습니다. 혹시 우리가 바라봐야 할 예수님을 보지 않고 바람과 파도를 보며 두려워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를 위협하는 것들로 가득한 주위를 바라보지 말고, 구원과 평안과 보호, 생명을 약속하시는 예수님께 시선을 집중하시길 축원합니다.

제 목

말세에 잊지 말아야 할 것 (벧후 3:1~9)

서 론 말세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1.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들

- (1) 둘째 편지를 쓰는 이유는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려는 것(1절)
- (2) 성도들이 상기해야 할 중요한 내용: ①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구주께서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2절) ②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3,4절) ③땅이 물에서 나와서 물이 넘침으로 멸망한 것 같이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5~7절) ④주의 약속이 더딘 것이 아니라 주께서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9절)
- (3)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8절)

본 론

2. 교훈

- (1) 베드로가 둘째 편지를 쓴 이유는?
- (2) 성도들이 항상 상기해야 할 중요한 내용은?
- (3) 이 내용들을 항상 잊지 않고 상기하고 있는가?

결 론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을 믿고 늘 깨어서 그 날을 준비하는 성도들이 됩시다.

예배 섬김이

	오늘 섬기실 분	다음 주 섬기실 분
2부 예배 기도	박영근 장로	편도선 장로
2부 예배 헌금	오세영 집사	서창덕 집사
오후 예배 기도	김정원 권사	김희상 집사
주 방 봉 사	여호수아회	마리아회

매일 Q.T.		하나님 앞에서 억울함을 토하는 기도	날짜 : 11월 11일 월요일
찬양	찬송가 86장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본문	시편 69:13~28		
말씀요약	시편 기자는 인자와 긍휼히 풍성하신 하나님께 큰 환난 중에서 자신을 건져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은 그가 당한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십니다. 그러기에 그는 주님의 분노를 대적자들에게 붙으시고 그들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시기를 간구합니다.		
목상질문 1	쓸개와 초를 마시는 시편 69:13~21 대적들은 고난당한 시편 기자에게 무엇을 주워 먹게 했나요? 사람들의 모함과 비방을 받을 때 나를 견디게 하는 힘은 무엇인가요?		
목상질문 2	원수의 멸망을 구하는 기도 69:22~28 시편 기자는 자신을 억울하게 한 원수들에 대해 어떻게 기도했나요? 내가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에 맡기고 기도할 일은 무엇인가요?		
한절묵상	시편 69편 16~17절 성도에게 소망의 근거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 이유로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불평할 수도 있었고, 자신의 헌신과 사랑을 외면하시는 듯한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괴로운 순간을 극복할 힘은, 상황에 변화가 없어도 주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데서 옵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주님! 제 마음을 솔직하게 말씀드릴 때 반겨 주시는 아버지의 품으로 나아 갑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든 한결같은 사랑으로 저를 안아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를 얻습니다. 억울함과 곤경으로 생긴 상처들을 싸매시고 낫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소서.		

개인 성경 공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찬양과 기도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새 370)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목상 나눔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삶에 적용한 말씀들을 나누어 보세요.
이야기 속으로	2004년에 개봉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는 멜 김슨이 메가폰을 잡고 제임스가 비 젤이 주연한 영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마지막 12시간을 다룹니다. 제임스가 비 젤은 개봉 이후 간증을 통해 자신이 영화를 촬영하며 겪은 일을 생생하게 전했습니다. 그는 실제로 채찍질을 당했고, 십자가에 매달리다가 어깨가 빠졌고, 십자가에 짓눌리는 등 많은 수난과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한번은 심장 이상으로 진찰받다가 의사로부터 이렇게 촬영하다가 는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그는 자신이 이 영화를 찍다가 죽으면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는 생각으로 계속 촬영을 이어 갔다고 합니다. 마지막 골고다를 오르는 장면을 촬영 할 때는 사탄이 “너는 죽은 목숨이야”라고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래, 지금 죽으면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어”라고 고백하며 계속 촬영 했고 순간 하늘에서 벼락이 그에게 내리쳤다고 합니다. 그의 몸에서 광채가 일어나고 머리 좌우로 불이 붙는 모습에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아수라장이 되었지만, 정작 그는 마치 태풍의 눈 속에 있는 듯 적막 가운데 자기 몸을 이탈해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고는 아무런 상처 없이 깨어났다고 합니다. 사탄의 거짓 속삭임에도 흔들리지 않고 굳게 믿음을 지키며 구원의 하나님을 의지한 그는 지켜 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말씀나누기	시편 70:1~5
목상포인트	문제가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이것은 주님을 믿는 성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에 언제나 탄탄대호가 펼쳐질 것 같지만, 평온하던 삶 가운데서도 때때로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때 어떤 사람들은 자신에게 도움이 될 만한 다양한 대상을 세상에서 찾으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이들과 다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할 대상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우리는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안에서만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적을 만나거나 위기를 겪을 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위대한 능력의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견지시켜서 구원의 주님을 찬양하게 하십니다.
관찰과목상	시편 기자는 목숨이 위협당하는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부르짖었나요?(1절)
적용하기	어려움과 위기가 닥칠 때 내가 도움을 구하는 첫 번째 대상은 누구인가요?
함께 기도하기	두려운 현실의 문제에 매몰되지 않고, 믿음의 눈을 들어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참된 도움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께 기도하고, 구원과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하소서.
기도	

매일 Q.T.		주님의 능력을 후대에 전하는 소망	날짜 : 11월 15일 금요일
찬양	찬송가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본문	시편 71:14~24		
말씀요약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그분의 공의와 구원을 전했듯, 늙어서도 그분의 능력을 전하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 심한 고난을 겪게 하신 하나님이 회복을 주시라 확신합니다. 그를 모해하려던 자들은 수치를 당하고, 그의 영혼은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목상질문 1	위기 순간에 빛나는 믿음 71:14~17 시편 기자는 어려서부터 자신을 교훈한 이는 누구라고 고백했나요? 나는 하나님 말씀을 배우거나 가르치는 삶을 어떻게 실행하고 있나요?		
목상질문 2	마지막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 71:18~24 시편 기자가 현신의 고통에도 불구하고 찬양을 잃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내가 사명을 다하기까지 기억하고 부를 찬양은 무엇인가요?		
한절묵상	시편 71편 18절 사명을 감당하는 일은 코 끝에 호흡이 있는 한 계속되어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나이가 많아 쇠약해질지라도 자신은 사명을 완수하겠다고 고백합니다. 그 사명은 그의 삶에 은혜와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다음 세대에 전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는 이전 세대의 거울과도 같습니다. 신앙의 정수와 말씀의 진리를 잘 전수받은 이들은 그 본보기를 따르며, 하나님을 거스르는 '다른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다음 세대'가 됩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주님, 고난 속에서도 정하신 때에 저를 건지시고 위로하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뜻을 측량할 수 없는 유한한 인생이지만, 지금껏 경험한 하나님의 공의와 구원을 다음 세대에 전하기 원합니다. 소망을 품고 주님의 선하심을 더욱 찬송하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매일 Q.T.		구원과 회복을 확신하는 기도	날짜 : 11월 12일 화요일
찬양	찬송가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본문	시편 69:29~36		
말씀요약	시편 기자는 가난하고 슬픈 자신을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높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송하는 것이, 황소를 드림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으로 인해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않으시며, 그분 이름을 사랑하는 자는 그분이 건설하신 곳에서 살 것입니다.		
목상질문 1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함 69:29~33 고통 속에서 탄식하던 시편 기자의 심경은 어떻게 변화되었나요? 내가 고통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목상질문 2	시온과 유다의 회복 69:34~36 개인의 억울함을 토로하는 것으로 시작된 기도가 어떻게 마무리되었나요? 눈앞의 문제를 넘어서 내가 궁극적으로 바라며 기도할 것은 무엇인가요?		
한절묵상	시편 69편 30~31절 진짜 믿음은 고난의 중심에서 확인됩니다. 깊은 수렁에 빠진 시편 기자는 고난의 상황에 매몰되지 않고 그곳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값비싼 제물로 드리는 제사보다, 그분 이름에 합당한 찬양을 더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고백하는 찬양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감사의 제사입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주요한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사 43:21). 찬양은 하나님과 나를 연결하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주님, 진정한 구원과 회복은 오직 주님께로부터 옴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협력해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합니다. 상황에서 눈을 들어 끝까지 주님을 바라봄으로, 예비된 복을 누리게 하소서.		

매일 Q.T.		원수의 조롱을 받을 때 드리는 기도	날짜 : 11월 13일 수요일
찬양	찬송가 38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본문	시편 70:1~5		
말씀요약	시편 기자는 자신의 상황을 기뻐하는 자들이 수모를 당하게 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주님을 찾는 모든 자가 기뻐하고, 주님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는 궁핍한 자신에게 하나님이 속히 오셔서 도움이 되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목상질문 1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 70:1~2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속히 도와 달라고 간구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절망적이라고 느끼는 상황에서 나는 누구를 가장 먼저 떠올리나요?		
목상질문 2	주님을 찾는 모든 자 70:3~5 위기 상황에서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주님은 어떤 은혜를 주시나요? 내가 추구하는 삶은 자기중심적인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다른가요?		
한절묵상	시편 70편 4~5절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성도는 삶으로 하나님을 드러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어디에서 기쁨을 찾는지, 누구에게 구원을 요청하는지, 삶이 힘들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누구의 도움을 기다리는지를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대소사를 막론하고 항상 '하나님 중심성'을 견지해야 합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할 때, 원수들의 조롱과 비웃음은 방향을 돌려 자신들에게로 향할 것입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하나님, 세상에 홀로 남겨진 것 같을 때에도 저를 도우시며 건지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기대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조소를 받을 때에도 주님을 찾는 이들에게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을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매일 Q.T.		늙어서 쇠약할 때도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날짜 : 11월 14일 목요일
찬양	찬송가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본문	시편 71:1~13		
말씀요약	시편 기자는 반석이요 요새이신 하나님께 피하며, 악인의 손에서 자신을 건져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모태에서부터 자신을 택하시고, 견고한 피난처가 되어 주시는 주님께 항상 찬송하며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는 자신이 쇠약해지더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대적들을 멸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목상질문 1	주님께 피하는 사람 71:1~4 시편 기자는 원수들이 공격할 때 항상 어디로 피했나요? 하나님을 의지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내게 어떤 은혜를 주시나요?		
목상질문 2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71:5~13 시편 기자가 진정으로 두려워한 것은 무엇이었나요?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내가 더욱더 힘쓸 일은 무엇인가요?		
한절묵상	시편 71편 6절 하나님은 인간의 인지 능력이 다다르지 않는 영역에서도 일하십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이 모태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말합니다. 이는 자신이 느끼거나 기억하기 전부터 하나님이 자신을 보호하시고 붙드셨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 크기와 한계를 가늠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합니다. 모태로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눈을 떼지 않고 시고 나를 지켜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분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주님! 한시도 제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의지합니다. 잠시 버려두신 것처럼 느껴지는 때조차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에 제가 안전함을 고백합니다. 모태에서부터 세상 떠날 때까지 저를 이끄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참 평안을 누리게 하소서.		